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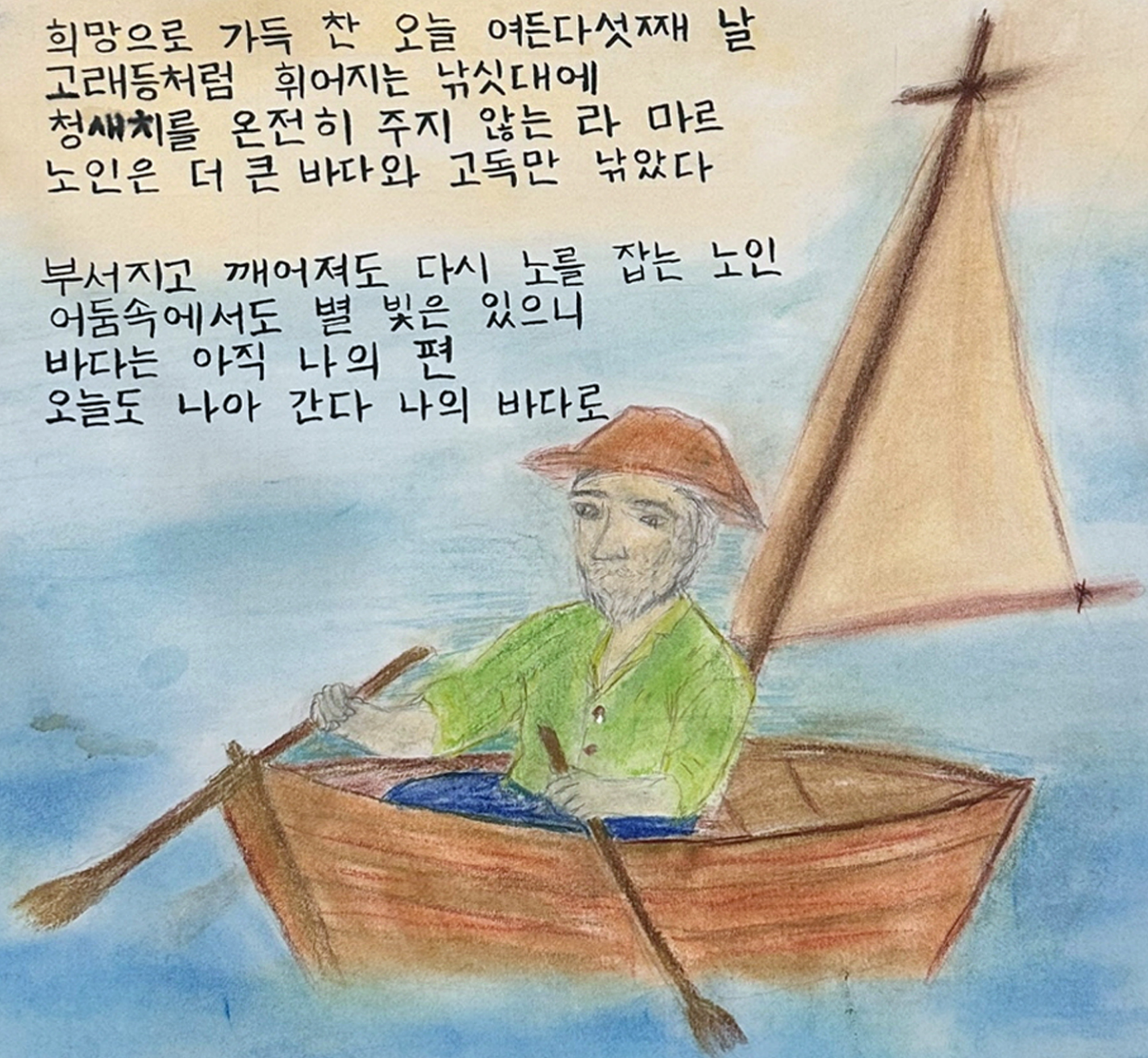
노인과 바다

1-A 정인숙

검푸른 바다 위 작은 배 하나
주름진 거친 손에 꿈을 낚는 산티아고
혼자여도 외롭지 않아 꺾이지 않아
묵묵히 줄을 당겨 고요를 낚는다

희망으로 가득 찬 오늘 여든다섯째 날
고래등처럼 휘어지는 낚싯대에
청새치를 온전히 주지 않는 라 마르
노인은 더 큰 바다와 고독만 낚았다

부서지고 깨어져도 다시 노를 잡는 노인
어둠속에서도 별 빛은 있으니
바다는 아직 나의 편
오늘도 나아 간다 나의 바다로

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

노인과 바다<헤밍웨이>

작품 설명

책을 읽고 바다를 배경으로 느낀 점을 썼다.